

# 2019년 제4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19. 4. 23.(화), 16:00~18: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 참석 위원 : 공공미술위원장 등 7명
- ◆ 주요 내용 : 홍제천 유진상가 추진사항 공유, '우리의 빛 이전 결과 공유, '20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방향 및 구성안

## □ 위원 발언 내용

- : 제4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의 내용은 총 세가지입니다.  
1. 홍제천 프로젝트에 위원 3분이 관여하여 추진 중이며 진행사항 공유하겠습니다. 2. 우리의 빛 이전 결과를 공유하고, 오늘 프로젝트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 나눌 예정입니다. 3. 내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개별 사업 평가 후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토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가, 기존 사업 변경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 〈홍제천 프로젝트〉

- : 홍제천 프로젝트는 소위원회에서 3번 정도 자문 받았음. 비물질인 복합예술 작품, 주민과 예술가들이 휴식하면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 예술가와 주민들이 같이 해당 장소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 과업으로 해서 시행사를 선정하려고 함. 서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임.

업체는 예술기획자와 같이 들어와야하고 수자원 개발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디자인 전문 업체, 건축, 조경 업체에 입찰조건을 줄 예정입니다.

- :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 기본적 검토비용 많이 들지 않으나, 심의도서 비용이 많이 발생함. 협의하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 : 홍제천이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세고, 인도까지 침수가 되므로 작품 손실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함.
- : 홍제천 근처에 학교, 아파트가 많아 위 프로젝트를 잘하면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 연결 부분은 구청도 동의한 것인가.
- : 홍제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과 유진상가를 통해서 공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최소한 두 개를 열어달라고 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임. 두 개 연결 방법에 대해 계속 서대문구와 논의 중임. 환경조성 또한 서대문구와 같이 논의할 것임.
- : 그라운드 작업이 안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실행 발주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 : 바닥 자체를 크게 손대지 않는 선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음.
- : 시행사가 그라운드 작업도 포함된 채 시공하라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장 추진 어려움이 있을 거임.
- : 회의에서 제가 서대문구에 제안한 것은 모든 재료는 콘크리트로 하기로 하고, 튀어 나온 언덕 같은 곳은 계단을 만들고 튀어나온 길을 깎아 달라고 하였음. 구청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음.
- : 서대문구 정비 범위에는 기본 조명 항목 있다.
- : 전선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어느 작품이 들어올지 몰라서 조명 밝기는 논의가 안 되어 있음
- : 과업지시서 상에 조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시행사가 결정되면 소위원회와 회의해야 함.
- : 문화행사 공간으로 만들자고 한다면, 조명과 같은 기본 시설이 있어야 가능함.
- : 예산이 적다는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고, 바닥정리는 서대문구에서 하는 쪽으로 논의 중임. 정해진 예산안에서 환경정비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지

만 최대한 작품 구현하고자 하며, 올해 사업 종료를 목표로 함. 서대문구와 계속 협상해서 안전, 예산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음.

- : 업체, 서대문구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면 함.
- :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전체 큰 크림을 그려야 함. 공유하고 분담할 부분을 정해야지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한다면 더 늦어질 거임.
- : 업체, 구청 담당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나아 보임. 공고 낼 때 현장설명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현장이 특수하다 보니 현장설명이 필요함.

#### 〈오늘 프로젝트〉

- : 다음 안건으로 오늘 프로젝트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음. 서울광장에 있는 작품은 서울식물원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오늘 프로젝트는 종결하는 것이 어떠할지
- : 동의함

#### 〈'20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방향〉 ※위원별 의견 정리

- : 지역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음. 더불어 아카이브 작업이 강화되었으면 함.
- :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서울시가 법률적 절차를 구체화해야 함. 또한, 합의과정을 통해 공공미술 매뉴얼을 만들어야하며, 작품 생애주기가 합의되어야 함. 미술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적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그런 사례를 모아 1년에 한 번씩 발굴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나.
- : 공공미술 플랫폼에서 철학, 비전, 아카이빙이 축적되어야 하고, 공공미술 주간이 있다면 누가 참여할지를 대강이라도 확정지어야 수준, 플랫폼 역할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봄. 그렇다면 어떻게 아카이빙을 할 것인가. 공모전, 공공미술 주간, 공공미술 플랫폼을 만들

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제도, 정책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음. 우리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내놓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될 것임. 디자인정책과도 제안해주시고 내년에는 최소한 법령을 마련할 수 있는 아카이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제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함. 위원회 심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례 변경과 같은 제도적 변화는 어떠한지. 또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시민과 공유하였으면 함. 우리가 일반적 사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정책적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지, 해당 사업을 만든다면 우리가 추진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함. 정책 제안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음. 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워크샵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 공공미술위원회가 실행위원회인지 정책적 위원회인지 역할이 분명치 않음.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전반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러지 못하고 있음.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한 정책적 포지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 공공미술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임. 유지보수 개념이 아닌 객관적으로 작품 생애 주기를 판정하여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있었으면 함. 또한, 퍼블릭x퍼블릭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은 다른 쪽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공공미술 주간에 작가, 기획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공공미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함.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음 회의에 의견 내주셨으면 함. 사업 비전, 아이디어 등을 간략하게 공유한다면 내년도 사업 재설계가 가능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